

# 기술력 배양과 합리적인 유통 구조의 구축을



이정식/ 본회 비상근 이사  
(주) 삼보컴퓨터 사장

계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이다.

새해 시작의 의욕 넘치던 발걸음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저마다 목표 달성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다. 그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거듭나기 위한 고통분담의 어려움으로 비치기도 했다. 특히 경제계는 초유의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많은 변화를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역사의 한장으로 기록될 1993년 한해를 회고하자니 감회가 새롭다.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자업계, 특히 컴퓨터업계에 있어 1993년은 실로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업체마다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386을 비롯한 상위기종으로 수요자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파격적인 가격하락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되었고 외국 대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날로 다양해지고 첨단화하는 기술우위 경쟁과 가격경쟁에서 정상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 시장을 내다보고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민한 마케팅과 개발력, 유통망을 통한 고객지원능력이 곧 컴퓨터업체의 승부처가 되었다.

컴퓨터를 비롯한 주변기기, 네트워크 분야가 일반사용자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컴퓨터시장은 양적인 확대에서 탈피, 보다 차원 높은 시장구조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변화를 적극 주도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기와 솔루션의 개발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제 싫든 좋든 우리는 정보화가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침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전자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몫이라고 할 때 최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방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을 적극 수용하면서 국내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기술경쟁력의 배양과 합리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을 우리 모두 함께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간 단기적인 물량경쟁을 탈피, 진정한 산업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결국 올 한해도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을 다함께 지나 왔으며 그것은 단기적이거나 내년에도 이어지

리라 볼 때 이런 위기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남보다 앞선 전략과 변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신한다. 특히 외국의 거대한 컴퓨터회사들이 속속 상륙하면서 자칫 국내 시장 기반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간 세계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수출경쟁을 해 왔던 국내 업체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산업이 한단계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기술개발투자와 마케팅의 국제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단기적인 처방이나 눈앞의 이익보다는 근본적인 발전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새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올 한해 전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온 한국 전자공업진흥회 관계자분들과 전자진흥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전자업계가 되기를 기원한다.